

Title: Obadiah part 3 – Sermon Notes

Scripture: Obadiah 10-14

Date preached: September 26th 2021**Scripture: Obadiah 10-14**

**10 “For violence against your brother Jacob, Shame shall cover you,
And you shall be cut off forever.**

**11 In the day that you stood on the other side—In the day that strangers carried captive his
forces, When foreigners entered his gates
And cast lots for Jerusalem—Even you *were* as one of them.**

**12 “But you should not have gazed on the day of your brother
In the day of his captivity; Nor should you have rejoiced over the children of Judah
In the day of their destruction; Nor should you have spoken proudly
In the day of distress.**

**13 You should not have entered the gate of My people
In the day of their calamity. Indeed, you should not have gazed on their affliction
In the day of their calamity, Nor laid *hands* on their substance In the day of their calamity.**

**14 You should not have stood at the crossroads To cut off those among them who escaped;
Nor should you have delivered up those among them who remained
In the day of distress.**

10 “네가 야곱의 후손인 네 형제들을 약탈하고 죽였으므로 네가 멸망하여 영원히 수치를 당할 것이다.

11 원수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그 재물을 약탈하고 그 성을 제비 뽑아 나눌 때에 네가 그 곁에 있었으니 너도 그들의 원수와 다를 것이 없다.

12 너는 네 형제들의 불행을 만족스러운 듯이 바라보거나 유다 백성의 패망을 기뻐하거나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우쭐대지 말았어야 했다.

13 내 백성이 재앙을 당하는 날에 너는 그들의 성에 들어가서 만족스러운 듯이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며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고

14 또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사거리에서 도망하는 자들을 붙잡아 그들을 원수들에게 넘겨 주었다.

Review

Last time we considered verses 2 to 9 of Obadiah's prophetic vision. According to our three part division of the book it was the section we titled the “Day of destruction.” This is an apt title because God through the prophet Obadiah tells of his judgement of the people of Edom and outlines the fate that will befall them.

Edom as we said last time were a proud group of people. They were so proud that they felt that they had no need to trust in God or to live in ways that honored or pleased Him. As I write these words I think today of most of Western Europe. Western Europe, although never perfect was built and founded upon Judeo-Christian values. But when we look at Europe today we see how far it has drifted from those ideals. Now, just like Edom it is full of prideful people who have no desire to seek after God and the things that please Him. Perhaps just like with Edom God will call time and bring His judgement to bear on Europe. What made Edom so proud? Their confidence and pride was built upon three areas. Firstly they felt physically safe and secure. They had chosen to live in a

remote and rocky area which could only be accessed through narrow mountain gorges. This meant it was an area that could easily be defended against enemies. It was said in fact that a few good warriors would be able to hold off an entire army.

Secondly they believed that they had a superior intellectual advantage over others. Because of the location of the King's Highway that crossed their land Edom had access to the latest news and discoveries. This had led to them developing a reputation for wisdom which they believed would serve them well in times of trouble.

Thirdly they had established covenants and agreements with many surrounding nations. This led them to believe that they would not be betrayed by these allies and that they might rely upon them for help in times of trouble. All of these things resulted in what the bible terms “pride of the heart.” Simply put, the people of Edom believed things that were not true. They were not safe and secure, their wise men were not that wise and their supposed friends and allies were about to stab them in the back! God had determined to use the surrounding nations to bring about His judgement on Edom. This would be swift and harsh. Thieves would come and plunder their possessions. These robbers would be thorough leaving nothing behind. The surrounding nations with whom they had covenants would break the terms of these agreements. They would unite and bring destruction on Edom. The wise men and warriors of Edom would be unable to keep these hordes away. They would be slaughtered. It was then a terrifying prediction of what was to come upon Edom.

Today we will look at part two titled “Day of shame.” In this section we will learn all about why God has decided that these terrible things will occur to Edom.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바댜의 예언적 환상 2-9 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의 세 부분으로 된 부분에 따르면 “멸망의 날”이라는 제목을 붙인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오바댜를 통해 에돔 백성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닥칠 운명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적절한 칭호입니다. 지난번에 말했듯이 에돔은 교만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그분을 영화롭게 하거나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살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 말을 쓰면서 나는 오늘날 대부분의 서유럽을 생각한다. 서유럽은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유대-기독교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유럽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이 그 이상에서 얼마나 멀리 표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에돔과 같이 교만하여 하나님과 그 기쁘시게 하는 것을 구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도 에돔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시간을 부르시고 유럽에 대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무엇이 에돔을 그토록 교만하게 만들었을까? 그들의 자신감과 자부심은 세 가지 영역에 세워졌습니다. 첫째, 그들은 신체적으로 안전하고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좁은 산골짜기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외딴 바위가 많은 지역에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만큼 적에게 쉽게 방어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사실 소수의 훌륭한 전사가 전체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그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지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땅을 가로지르는 왕의 대로의 위치 때문에 에돔은 최신 뉴스와 발견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고난의 시기에 그들에게 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지혜에 대한 평판을 발전시키도록 이끌었습니다. 셋째, 그들은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언약과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 동맹들에게 배신당하지 않을 것이며 곤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 의지할 수 있다고 믿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성서에서 “마음의 교만”이라고 표현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에돔 사람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안전하지 않았고 현명하지도 않았고 현명하지도 않았으며 친구와 동맹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그들의 등을 찌르려고 했

습니다! 하나님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내리기 위해 주변 나라들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빠르고 가혹할 것입니다. 도둑들이 와서 그들의 소유물을 약탈할 것입니다. 이 강도들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할 것입니다. 그들이 계약을 맺은 주변 국가들은 이 계약의 조건을 깨뜨릴 것입니다. 그들은 연합하여 에돔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에돔의 박사들과 전사들은 이 무리를 물리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학살당할 것입니다. 당시 에돔에 닥칠 일에 대한 무서운 예언이었습니다. 오늘은 '치욕의 날'이라는 제목의 2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무서운 일이 에돔에 일어날 것이라고 결정하셨는지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1	Day of destruction 파괴의 날	Judgement against Edom is prophesied 에돔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다	1-9
2	Day of shame 수치의 날	The reason for God's judgment is revealed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10-14
3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	What will be the result of God's judgement is revealed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드러날 것입니다	15-21

Today we will look at verses 10 to 14. However in order to understand why God determined such a harsh punishment for Edom I need to briefly outline the surrounding historical context.

I have here a very simplified time-line that shows what happened to God's people from the death of King Solomon to the Babylonian captivity. In 931 BC King Solomon died and the nation of Israel was divided into two. In the north was Israel comprising 10 tribes. In the south was Judah made up of the remaining two tribes; Judah and Benjamin. In 722 BC God tired of the idolatry of his people in Israel and sent the Assyrians to conquer them. The nation was dispersed and many of it's leading citizens were taken into captivity. Judah was left alone. However a new super-power, the Babylonians was developing in the region. In 613 BC the Babylonians conquered the Assyrians and became the new dominant Empire. It was not long before they enviously eyed Judah. In 605 BC Nebuchadnezzar II became king and in 597 BC the Babylonians began their conquest of Judah. The people of Judah put up strong resistance but were no match for the might of the Babylonians. In 586 BC the city of Jerusalem following a long siege was captured and destroyed. King Solomon's temple which had stood for 400 years was demolished. The brutal Babylonians killed many of the leaders of Judah and plundered the cities treasures. Again the best and the brightest people of Judah were taken away into captivity. This is all significant because of what the people of Edom were doing whilst Judah was being attacked. Their response to the plight of God's people explain why God chose to punish them so harshly. Let's turn now to verse 10.

오늘 우리는 10 절에서 14 절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에돔에 대해 그러한 가혹한 형벌을 결정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나는 주변의 역사적 맥락을 간략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솔로몬 왕의 죽음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난 일을 보여주는 매우 단순화된 연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931 년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북쪽에는 10 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나머지 두 지파로 구성된 유다가 있었다. 유다와 베냐민. 기원전 722 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에 질려 앗수르를 보내 그들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국가는 흩어졌고 많은 주요 시민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유다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초강대국인 바빌로니아인들이 이 지역에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613 년에 바빌론은 앗수

르를 정복하고 새로운 지배적인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다를 시기심에 사로잡은 지 오래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605 년에 느부갓네살 2 세가 왕이 되었고 기원전 597 년에 바빌론 사람들이 유다를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백성은 강한 저항을 했지만 바벨론의 세력에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기원전 586 년에 오랜 포위 끝에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파괴되었습니다. 400 년 동안 서 있던 솔로몬 왕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잔인한 바빌론 사람들은 유다의 많은 지도자들을 죽이고 도시의 보물을 약탈했습니다. 유다의 가장 훌륭하고 가장 빛나는 사람들이 다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공격을 받고 있는 동안에 동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일 때문에 모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곤경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토록 가혹하게 벌하기로 하셨는가를 설명합니다. 이제 10 절을 봅시다.

**10 “For violence against your brother Jacob, Shame shall cover you,
And you shall be cut off forever.**

As I talked about in study one both Edom and Judah could trace their line of ancestry back to two brothers. Edom's original father was Esau and Judah's father was Jacob. We have an idiom in English which says, “blood is thicker than water.” The meaning of this expression is that it is natural to have greater loyalty, and deeper ties to family members than strangers. We know from experience that families often disagree and these disagreements sometimes results in break-ups or splits. But when a family member is in need we typically put our differences aside and help them.

The families of Edom and Jacob had seldom been on good terms. But it might have been expected that in their hour of great need Edom would have helped Judah. Even if they did not possess an army powerful enough to go up against the Babylonians they could at least have helped shelter the fleeing people of Judah. Sadly this was not the case. They were guilty of committing violence against their brother. They turned their backs on the people God had chosen to bless. This was not something that God could accept. It was not an act that would go unpunished. God's judgement is harsh but fair. For their crimes they will be cut off forever. In other words their nation would be taken away from them, and they would lose everything. This reality is there for us to see. There is no country of Edom in existence today.

내가 연구 1 에서 말했듯이 에돔과 유다는 그들의 조상 가계를 두 형제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에돔의 아버지는 에서였고 유다의 아버지는 야곱이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낯선 사람보다 가족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유대감이 더 깊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가족이 종종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며 이러한 불일치로 인해 때때로 헤어짐이나 분열이 발생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이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차이점을 제쳐두고 그들을 돕습니다. 에돔과 야곱의 가족들은 좀처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큰 도움이 필요한 때에 에돔이 유다를 도왔을 것이라고 예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을 치러 올라올 만큼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도망하는 유다 백성을 보호하는 데 최소한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형제에게 폭력을 저지른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아들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벌받지 않을 행동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가혹하지만 공평합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해 그들은 영원히 끊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나라는 그들에게서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현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 에돔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1 In the day that you stood on the other side—In the day that strangers carried captive his forces, When foreigners entered his gates

And cast lots for Jerusalem—Even you *were* as one of them.

We come here then to the specific charges leveled against Edom. My assumption is that Obadiah is referring to the Babylonian conquest and capture of Jerusalem in 586 BC. So let us picture as best we can that brutal siege and attack. The Babylonian forces massed against the walls of Jerusalem. What were the people of Edom doing at this time? It seems that they were stood watching from a safe distance. Now we quite rightly recognise that sin is often an active thing. Sin is something I do or think. We less often think of sin as being passive or inactive. But this is wrong. It can be just as sinful to do nothing. There was a very shocking video posted on YouTube several years ago. It showed a young girl who was hit by a car in China. Many passers-by saw her lying injured in the street and did nothing. Eventually she was hit by another car and tragically killed. I wonder what kind of defence these passer-bys would give to defend their callous uncaring hearts. I was in a rush, it had nothing to do with me, I didn't want to get involved, I didn't want to get my clothes dirty. Doing nothing was in this case a sin.

It was equally a sin for Edom to watch Judah suffering and do nothing. And yet this is exactly what Edom did as the walls and gates of Jerusalem were destroyed, and the people were carried out at spear point to go into captivity. Their attitude showed that they were just like the Babylonians. Hard, brutal and uncaring, they had turned their back on their own family.

우리는 에돔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여기에 왔습니다. 내 가정은 오바댜가 기원전 586년 바빌론의 정복과 예루살렘 함락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 잔인한 포위 공격을 상상해 봅시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벽을 향해 집결했습니다. 이때 에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안전한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가 종종 활동적인 것임을 아주 올바르게 인식합니다. 죄는 내가 행하거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수동적이거나 비활동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YouTube에 매우 충격적인 동영상이 게시되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에서 차에 치인 어린 소녀를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행인들은 그녀가 거리에서 부상을 입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른 차에 치여 비극적으로 사망했습니다. 무심한 그들의 냉담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이 행인들이 어떤 변명을 할 지 궁금하다. 나는 서두르고 있었고, 나와 아무 관련이 없었고, 관여하고 싶지도 않았고, 내 옷을 더럽히고 싶지도 않았다. 이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죄였습니다. 에돔이 유다가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똑같이 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에돔이 예루살렘의 성벽과 문이 파괴되고 백성이 창으로 끌려가 포로가 되었을 때 한 일입니다. 그들의 태도는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과 같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칠고 잔인하며 무자비한 그들은 가족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12 “But you should not have gazed on the day of your brother

In the day of his captivity; Nor should you have rejoiced over the children of Judah

In the day of their destruction; Nor should you have spoken proudly In the day of distress.

It would have been bad enough if they had only watched, but their guilt is greater still. They not only watched by they also cheered and were joyful as Jerusalem fell. It shows an uncaring and hard heart to stand by and watch the misfortune of others. However to rejoice when others have misfortune reveals a wicked and evil heart. It demonstrates the prideful nature of the Edomites.

They gloated that this terrible thing had not happened to them. We should take note of this attitude in our own lives. At times, we can be guilty of being pleased and even rejoicing in our hearts when misfortune happens to others. Such a way of thinking has no place in the heart of a Christian.

지켜보기만 했다면 충분히 나뵈겠지만 그들의 죄책감은 더 크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남의 불행을 지켜보는 무뚝뚝하고 완고한 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남에게 불행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마음이 악하고 악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에돔 사람들의 교만함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 끔찍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태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고 방식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13 You should not have entered the gate of My people

In the day of their calamity. Indeed, you should not have gazed on their affliction

In the day of their calamity, Nor laid *hands* on their substance In the day of their calamity.

We see here an escalation or a progression of Edom's involvement in the fate of Judah. They began merely by watching, then they started to gloat and rejoice and now they actively enter the fallen city of Jerusalem in order to loot. Let me put this in a way that will help you better understand how wicked the Edomites were. Imagine if one day you saw that your neighbors house was being attacked by thieves. Let us say that this is a neighbour that you are not very friendly with. Despite this it would still be very hard-hearted for you to do nothing, not even call the police. You would hope if the situation were reversed that they would help you. Then imagine you see the thieves badly beating up your neighbor and leaving him bloodied on the ground. Instead of trying to help you just laugh and feel proud that your house is safe. But then once the thieves have left you walk over and enter your neighbors house to see if there is anything valuable worth taking. Obviously someone who acted like this would be a contemptible person. This was what the people of Edom did. In Judah's time of calamity not only did they do nothing to help, but they actively participated in taking from her.

여기서 우리는 유다의 운명에 에돔이 개입하는 과정이 확대되거나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보기만 하다가는 기뻐하고 기뻐하다가 이제는 약탈을 하기 위해 몰락한 예루살렘에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웃 집이 도둑에게 습격당하는 것을 보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별로 친하지 않은 이웃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매우 힘든 일입니다. 상황이 역전되면 그들이 당신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도둑이 이웃을 심하게 구타하고 그를 땅에 피투성이로 남겨두는 것을 보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을 도와주려는 대신 그저 웃으면서 당신의 집이 안전하다는 자부심을 느끼십시오. 그러나 일단 도둑이 떠나고 나면 당신은 걸어가서 이웃 집에 들어가 가치가 있는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걸어갑니다. 분명히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경멸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에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유다의 환난 때에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다를 빼앗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14 You should not have stood at the crossroads To cut off those among them who escaped;
Nor should you have delivered up those among them who remained In the day of distress.**

The final step of the progression of involvement is the most shocking and horrific of them all. It was bad to watch, it was awful to gloat and feel joy, it was terrible to steal but what they do next is absolutely wicked. What the people of Edom did was actively joined in physical violence against the people of Judah. It seems that they positioned themselves along some of the routes the people of Judah were using to escape. As they came near the Edomites were either killing them (cut off) or capturing them to return them as prisoners to the Babylonians.

One of the criticisms often leveled by atheists against God is that He is overly judgemental and cruel. They particularly say this about the God of the Old Testament. The God of the Old Testament is so mean and cruel they claim. So what about the fate of Edom? Was God just and fair to punish Edom so harshly? Well Edom made the choice to cut down others.

They could have helped even in a modest way. They chose not to. Therefore God is perfectly just in treating them in the way they treated His people. The punishment fits the crime. They cut down others, and they too will be cut down.

참여 진행의 마지막 단계는 그 중 가장 충격적이고 끔찍합니다. 보는 것도 나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도 끔찍하고, 도둑질하는 것도 끔찍하지만 그들이 다음에 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사악합니다. 에돔 사람들이 한 일은 유다 사람들에 대한 물리적 폭력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 사람들이 탈출하기 위해 사용했던 일부 경로를 따라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죽이거나(절단) 사로잡아 바벨론에게 포로로 돌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자주 제기하는 비판 중 하나는 하나님이 지나치게 판단적이고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히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비열하고 잔인합니다. 그렇다면 에돔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에돔을 그렇게 가혹하게 벌하시는 것이 공정하고 공평하신가? 그런데 에돔은 남을 베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소소하게라도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당신의 백성을 대했던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는 데 있어 완벽하게 공의로우십니다. 처벌은 범죄에 맞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베고 그들도 베일 것입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things to highlight from today's passage.

오늘 본문에서 강조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Doing nothing can still be a sin

One of the things older people often note is how community spirit and neighborliness has diminished. In the past they say people looked out for one another. Today we seem to see it as a virtue to leave our neighbours in peace and to live completely separate lives. I do not for example even know the names of my neighbours and I doubt I would recognise them if I met them on the street. Sadly one of the consequences of this is that we can become callous or indifferent to them. Would we go out of our way to help a stranger? Many of us might have to think about that question. Judah of course was not a stranger to Edom. They were brothers. This makes their sin of doing nothing to help even worse. My question for you today is what are you not doing that you should be doing. The list might be long. Are you sharing the gospel? Are you doing what you can to help the poor and needy? Are you supporting the local church, missionaries or Christian charities? Are you actively vocal in standing against the evil in society such as abortion? Are you trying to live as a good obedient child of God? There is much room for improvement in all of our lives. But let me leave you with the warning given by James.

Therefore, to him who knows to do good and does not do it, to him it is sin. (James 4:17)

1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자주 주목하는 것 중 하나는 공동체 정신과 이웃애가 얼마나 감소했는지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웃을 평화롭게 두고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웃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며 거리에서 만난다면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슬프게도 이것의 결과 중 하나는 우리가 그들에게 냉담하거나 무관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을 돕기 위해 길을 나서겠습니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유다는 에돔에게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형제였습니다. 이것은 도움을 주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들의 죄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은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록이 길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역 교회, 선교사 또는 기독교 자선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낙태와 같은 사회악에 맞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준 경고를 남겨두겠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죄니라. (약 4:17)

2 The progression of sin

One of the interesting things to consider from the situation with Edom was how sin progressed. It began by simply looking. It then went to mocking, gloating and rejoicing. From here it progressed to taking by force what was not theirs. Finally, it culminated with murder. Sin often follows this pattern of gradual escalation. I am a fan of true crime podcasts. When I exercise I like to listen to accounts of the crimes committed by serial killers or murderers. Part of my interest in this morbid subject lies in trying to understand what led to this horrendous act. Often I have noticed that a pattern emerges. The person was frequently abused as a child. They then start hurting animals or other family members. As they get older they begin to fantasize about doing worse things to others. They move on to a minor offenses and finally too much more serious crimes like kidnap and murder. The point I am making is this. At any point along this progressive route of sin we can stop, repent and turn to the mercy of our loving Heavenly Father. The Edomites might have been spared by God if after watching the Babylonian attack they had repented and then tried to help Judah. Instead, they allowed the sin to develop to the point where God determined to cut them off. What sins in our lives are we indulging? What sins are in danger of progressing and taking us further into darkness. Let us be aware of the danger of sin but equally always aware that God is merciful in forgiving us our sins when we confess them to Him.

2 죄의 진행

에돔의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였습니다. 단순히 보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조롱하고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여기에서 그것은 그들의 것이 아닌 것을 강제로 빼앗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살인으로 끝이 났다. 죄는 종종 이러한 점진적인 확대 패턴을 따릅니다. 나는 진정한 범죄 팟캐스트의 팬입니다. 나는 운동을 할 때 연쇄 살인범이나 살인범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병적인 주제에 대한 나의 관심 중 일부는 이 끔찍한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종종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사람은 어렸을 때 자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동물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해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쁜 짓을 하는 것에 대한

환상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경미한 범죄로 넘어가고 마침내는 납치 및 살인과 같은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집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 점진적인 죄의 길을 따라가는 어느 시점에서든 우리는 멈추고 회개하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바벨론의 공격을 보고 나서 회개하고 유다를 도우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어버리기로 결정하신 지경까지 죄가 발전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어떤 죄를 짓고 있습니까? 어떤 죄들이 우리를 더 나아가 어둠 속으로 데려갈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죄의 위험성을 인식하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실 때 자비로우심을 항상 인식합시다.